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태고 보우 국사 선양, 韓 불교 뿌리 찾는 불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진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가장 많은 변화를 이룬 불교 종단을 꼽으라면 첫 번째로 거론되는 종단이 ‘태고종’이다. 각종 사회 이슈를 선점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전개하며, 파사현정의 불교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중심에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있다.

상진 스님은 2023년 6월 27일 임기를 시작하며 ‘대내외 소통’을 이어갔다. 지방종무원을 순시하고 지자체 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모로코 강진 때에는 가장 먼저 애도문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화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10월 2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만난 상진 스님은 지난 1년을 “총무원장으로서 활동을 4년은 한 것 같다”고 술회했다. 그만큼 격무의 연속이었다는 의미다.

“저는 일신상의 명예를 위해 총무원장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종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총무원장 선거에 나온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지내면서 잘못됐던 사안들이 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변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종도들의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종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은 대외 위상 강화의 원동력 중 하나로 ‘인재 영입’을 꼽았다. 실제로 상진 스님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싱크탱크 조직을 구성했다. 이 역시 앞선 태고종 집행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보였다. 종단 내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 총무원 주요 소임을 맡도록 한 것도 주요했다.

“태고종 종도스님 중에는 좋은 능력을 가진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 인재들을 등용시켜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죠. 저는 태고종이 한국불교 최고 종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출재가 종무원들도 이 같은 희망과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최근 태고종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이다. 지난 7월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상진 스님은 1년 간의 성과 발표 대신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준비됐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전면 수정해 반대운동 전개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건립 반대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건립 반대 기조도 ‘전면적 반대’로 확대됐다.

결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8월 22일 태고종 총무원을 찾아 태고종도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이 주도한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의 1차 결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렇지만 태고종의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진 스님은 “기념관 건립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승만기념관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회 측이 ‘협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망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송현공원 아닌 서울 어느 곳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취임 1년간 종단 위상 강화 매진

‘이승만기념관 반대 운동’ 이끌어

11월 방중… 중국불교계와 세미나

석옥청공–태고보우 법맥 조명나서

“태고 보우, 한국불교 종조” 강조

‘육바라밀’ 실천하면 갈등 사라져

“언론도 불자… 불법홍포 매진을”

상진 스님은 이승만기념관을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지니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7차에 걸친 유시 발표를 통해 불교계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불교는 극심한 분열과 내홍으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대불교의 새로운 태동을 위한 한국불교 스스로의 노력과 동력을 가질 수 없게 했죠. 그리고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한국불교 종단 중 잠재력이 가장 큰 종단임을 자부한다. 태고 보우 국사로 이어지는 한국불교 법맥을 계승하는 종단이며, 전통 유·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스님은 종단의 법통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태고종 종보인 한국불교신문에 태고 보우 국사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 연재되고 있으며, 매년 태고 보우 국사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다례재와 문화축제를 운영 중이다.

태고 보우 국사의 ‘태고암가’를 비롯한 선양을 위한 노래를 제작 중이며, ‘태고문화예술상’ 제정·운영 계획도 갖고 있다. 오는 11월 말에는 중국불교계와 함께 절강성(浙江省) 호주(湖州)에서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석옥 청공(1272~1352) 선사는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입니다. 태고 보우 국사는 1346년 중국으로 들어가 1347년 석옥 청공 선사에게 인가를 받고 임제종 적통을 이었습니다. 백운 경한(1299~1347) 선사도 1351년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묻고, 인도 선승인 지공 스님(?~1363)에게 사사 후 1352년 귀국했습니다. 태고 보우 국사가 불조의 정법을 고려로 가져옴에 따라 한국의 선법(禪法)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전승됐던 정법안장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고로 뿌리를 잊은 국가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불교 종조는 바로 ‘태고 보우 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고 보우 국사가 범불교적으로 선양돼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여지듯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스님에게 불교적 해법을 물었다. 이내 상진 스님은 ‘육바라밀행’을 해답으로 내놨다.

“모든 문제는 ‘나만 옳다’는 독선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분별이 끊어진 지혜, ‘무분별지(無分別智)’를 강조하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행이 필요합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을 통해 진실하고 올바른 지혜, 무분별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살행이란 지혜에 의거한 자비행이죠. 국가든 개인이든 분별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인터뷰 말미, 창간 30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에 덕담을 요청했다. 상진 스님은 “우리 모두 부처님 제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법홍포에 매진하는 불교계 언론에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태고종은 불교계 언론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는 모두 ‘정론’이라는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가십성 기사나 불필요한 종권 다툼 기사보다는 호법과 호교를 위한 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제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길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